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殊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9
ISSN 1227-7053 TEL. 568-6651~2
568-5595~6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한·일 어항기술교류 첫발 개발상황파악 등 과제논의

3월 18일 東京서 제1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 東南亞지역 확대 제의

「제1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가 지난 3월18일 일본 동경에 소재한 마루노우치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어항협회와 일본 전국어항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한·일 양국의 어항기술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와 양국 어항관계자의 친선을 도모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양국 어항기술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데 큰

의미를 둔 이번 회의에서는 △어항어촌 개발에 관한 법제도 및 행정조직 △어항어촌의 현상과 과제 및 개발상황 △금후 회의의 진행방향 등 3가지 과제가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高德鳳 본회 전무이사과 朴元吉 해양수산부 어항과 토목사무관, 李弘植 중앙대학교 교수, 河周龍 본회 기술개발과장 등 4명이 참석했으며, 일본측에서는 川口毅 수

산청 어항부장의 수산청 관계자 6명, 佐藤稔夫 전국어항협회장 외 협회관계자 3명, 기타 어항관계자 5명 등 16명이 참석했다.
한편 양국 어항협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회의의 추진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魚食민족을 중심으로한 동남아시아 국가(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를 대상으로 어항어촌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관한 국제적인 의견교환, 기술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94년 8월 이후 양국 어항협회에서 어항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10월 일본 宮城縣 仙臺市에서 개최된 제48회 전국어항대회에 초청된 손정식 회장이 동경에서 양국 어항협회장 회담을 갖고 한·일 어항기술교류에 관한 국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와함께 제2회 회의는 98년 서울에서 개최기로 하되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차후 양국 어항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과, 지난해 10월 일본 宮城縣 仙臺市에서 개최된 제48회 전국어항대회에 초청된 손정식 회장이 동경에서 양국 어항협회장 회담을 갖고 한·일 어항기술교류에 관한 국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와함께 제2회 회의는 98년 서울에서 개최기로 하되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차후 양국 어항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제1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가 지난 3월18일 일본 동경에 소재한 마루노우치호텔에서 개최됐다.

관한 국제적인 의견교환, 기술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94년 8월 이후 양국 어항협회에서 어항기술

지난 3월18일은 우리나라 어항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획을 그은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 동경에서 「제1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일본 宮城縣 仙臺市에서 개최된 제48회 전국어항대회에 초청된 손정식 협회장이 동경에서 양국 어항협회장 회담을 갖고, 한 일 어항기술교류가 꼭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관한 국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될 이 회의가 갖는 의미는 우리의 기대 이상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의 어항분야 기술이 일본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동재산인 해양의 보전과도 연계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같이 협의과정에서 양국이 공통으로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남이 달려간다면 우리는 최소한 걸어서라도 뒤따라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나 엉거주춤하게 있을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시간이 흐르면 발전하게 마련이지만 어떤 적극적인 자극이 없이는 그 속도가 지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는 충격요법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韓·日漁港기술회의

양국 협회를 창구 어항발전
안전·원활·효율성에 공감
기술한계 극복 세계안목 키우는 계기

자존심이 결코 뒤쳐진 기술을 끌어올려 주지는 않는다. 미흡한 기술력은 솔직히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나라 어항어촌의 발전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묘방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교류회의의 협의과정에서 양국은 앞으로의 수산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첫째, 해양을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둘째, 한정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일이 없이 셋째,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넷째,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다섯째,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취로환경과 생활환경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수산업의 생산기반 시설이자 거점이 되는 어항을 염두에 두면 앞으로 어항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우리의 어항어촌도 물론 과거에 비해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추세에 모든 것을 맡기다 보면 선진 어항국과의 격차는 나날이 더욱 크게 벌어져만 갈 뿐이다.
그 방법은 활발한 선진어항국과의 교류를 통해 과감히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
선진어항국, 특히 자연적 여건이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일본의 어항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기에 그들과 교류를 극대화함으로써 이미 그들이 성취해 놓은 어항기술을 도입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상어항어촌 실현은 그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어쭙잖은 자존심, 국수주의, 부정적인 측면은 과감히 버리자. 우리앞에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漁港, 관광효과 큰 자원”

한국관광연구원 어촌관광전문가 회의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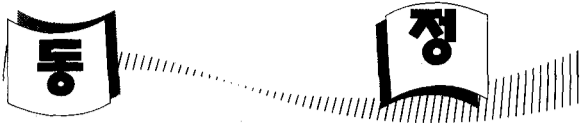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3월20일 어촌관광 활성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어촌관광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어촌관광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양대학교 손대현 교수는 “관광은 돈을 버는 일이 최대 관심사이고 개발의 전도사처럼 현대적인 모든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오랜 옛 지혜’ 속에 있다는 가르침을 따라 어촌관광개발의 방향은 ‘생태적 마을’, ‘軟性관광’으로 전개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쉼버린 고향을 되찾게 하는 민박마을, 향토음식 개발과 바다리조트와 건강전략 등을 제시했다.
한국관광연구원 이광희 실장은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대상 자원으로서는 백사장, 낚시터, 방풍림, 어항관련시설, 어업관련 산업시설, 풍어제나 당산제 등의 종교행사, 사찰 및 주요 사적지 등인데 이중에서도 관광개발연관효과가 큰 자원은 어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어촌관광개발을 위한 세부추진 방향으로는 “볼거리의 개발, 먹거리의 개발, 살거리의 개발, 놀거리의 개발, 관광자원시

설의 개발, 마케팅 전략의 개발” 등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어촌관광개발사업과 관련, 전국 어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부존관광자원과 개발적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관광개발의 추진에 애로가 있어, 사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금후 어촌관광 정책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양국의 어항협회를 창구로 해서 어항관련 정부당국, 민간단체 업체와의 인적 물적 기술 감각 등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기술수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안목을 키우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일 어항기술교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제1차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를 시발점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해서 동남아국가들을 포함시키는 국제회의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어항어촌의 실현에 효율적 합리적 경제적으로 빨리 도달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이어가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항만 어항건설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辛相佑 해양수산부장관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7일 힐튼호텔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굴수하식양식 수협이 주최하는 97한려수도 청정해역 굴축제에 참석, 20일에는 항만 어항건설업체 대표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



孫井植 한국어항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3월13일 63빌딩 별관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신한국당 전국위원회 제2차회의에 참석, 24일에는 인터콘티넨탈국화룸에서 열린 제54회 한바다 최고경영자 조찬모임에 참석, 21일에는 수협중앙회에서 개최된 1997년도 한국수산물 정기총회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3월8일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 기금(IOPC FUND) 야콥스 사무국장의 방문을 받고 환담, 14일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업무보고에 참석.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3월11일부터 3일간 본부 각 부서별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협회운영에 관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3월3일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 5일에는 문화원도지가 주관한 기관장 조찬회에 참석, 7일에는 대한검도회 회장직을 이임, 14일에는 광주전남 21세기발전협의회 이사회에 참석, 19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1차 상임위원회에 참석, 25일에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검도대회에 참석차 출국.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3월3일 송원산하 각 급학교 입학식에 참석, 6일에는 금광기업(주)의 ISO 9001 인증획득과 관련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ISO 9001 인증획득 수여식에 참석, 14일에는 송원백화점 여수점 개점식에 참석, 21일에는 광주이동통신 주주총회에 참석.

▲정덕용 주식회사삼전사 회장은 3월13일 한국항만협회 이사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3월7일 서울법대 운영위원회에 참석, 13일에는 63빌딩 별관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신한국당 전국위원회 제2차회의에 참석, 14일에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조찬간담회에 참석, 20일에는 21세기경영인클럽 조찬세미나 및 전경연 최고경영자과정 정기총회에 참석, 25일에는 21세기정책연구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3월18일 대한건설협회 이사회에 참석, 21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신규 사무총장 환영환송연행사에 참석.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3월7일 백범 김구 선생기념사업회 이사회에 참석, 21일에는 범죄예방전국연합회 회의에 참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단 회의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3월13일 진도공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신한국당 전국위원회 제2차회의에 참석, 24일에는 인터콘티넨탈국화룸에서 열린 제54회 한바다 최고경영자 조찬모임에 참석, 21일에는 수협중앙회에서 개최된 1997년도 한국수산물 정기총회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3월17,18 양일간 여수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을 격려.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과장급 전보 ▲항만건설국 기획과장 박영우 "산업협과장 남대우" 시설안전과장 이용기 부산 지방해운항만청 부산항건설 사무소 조사시험과장 강범구 <3월 10일자>.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은 최근 이종성씨(전 한국항만기술단 사장)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당선

<축하합니다>

- ▲차석교 조합장(인천수산업 협동조합)
- ▲김영택 조합장(냉동물제조 수산업협동조합)
- ▲김종호 조합장(광양시수산업 협동조합)
- ▲임덕섭 조합장(해수어류양식 수산업협동조합)
- ▲윤종목 조합장(강구수산업 협동조합)
- ▲강유삼 조합장(성산포수산업 협동조합)
- ▲임화석 조합장(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
- ▲김종섭 조합장(강진군수산업 협동조합)
- ▲정건웅 조합장(울릉군수산업 협동조합)
- ▲홍성보 조합장(제주시수산업 협동조합)
- ▲우남기 조합장(영광군수산업 협동조합)

업협동조합

- ▲김 흥 조합장(삼천포시수산업협동조합)
- ▲김현중 조합장(흑산도수산업협동조합)
- ▲정한욱 조합장(약산수산업 협동조합)

기 설

▲수협중앙회는 3월7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91번지 구리동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구리도매시장 지점을 개설, 전화번호:(0346) 555-2072-5. 11일에는 부산시 남구 문현동 255-30번지에 문현동지점을 개설, 전화번호:(051) 637-4111-4. 18일에는 대구시 달서구 송현2동 189-8번지에 송현역지점을 개설, 전화번호:(053) 651-1491-3.

학 속

▲김형인씨(해양수산부 어촌개발과장)의 장녀 선영 양이 3월29일(토) 오후 2시 수원 농조예식장에서 화축을 밝힌다. ▲진용우씨(본회 어항청소선 905호 기관장)은 오는 4월 6일(일) 12시 거제시 소재 신현농협예식장에서 화축을 밝힌다.

학 비 납 부

-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 ▲주식회사동아기술공사(사장 김영삼)
- ▲냉동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영택)
- ▲주식회사우창해사(사장 이봉태)
- ▲한림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승필)
- ▲후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유형)
-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성수)
- ▲울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오성웅)
-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 흥)
-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덕섭)
- ▲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사장 오세항)
- ▲원양어업개발주식회사(사장 김응수)
- ▲목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현상)

- ▲인성실업주식회사(사장 박인성)
- ▲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사장 이환범)
- ▲주식회사세광종합기술단(회장 최석환)
-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종섭)
-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창락)
- ▲나로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성필)
-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성식)
-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동철)
- 개인

- ▲윤주영씨(동도기업 사장)
- ▲임승언씨(김포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김일제씨(주식회사법신기획 회장)
- ▲김홍배씨(전 원예정보시스템 상임고문)
- ▲임중재씨(인천교역상사 사장)
- ▲임성재씨(정일금속 사장)
- ▲정척희씨(주식회사방산정밀화학 회장)
- ▲안창수씨(전 법제처 국장)
- ▲윤석환씨(주식회사파라다이스여행사 사장)
- ▲백운영씨(신일학원 이사장)
- ▲전기원씨(임덕건설산업주식회사 회장)
- ▲신언한씨(협신상호신용금고 감사)
- ▲이기홍씨(삼성전자주식회사 이사)
- ▲김중근씨(김중근회계사무소 소장)
- ▲박대현씨(한국국방연구원 안보연구위원)
- ▲공종덕씨(현대지리정보주식회사 사장)
- ▲황권주씨(주식회사인우 회장)
- ▲이동섭씨(청소년지도육성회 사무총장)
- ▲박규욱씨(삼정기업주식회사 회장)
- ▲송형준씨(외환은행 호주사장)
- ▲이왕렬씨(국제전략경영연구원 원장)
- ▲금종석씨(신신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이기인씨(현우회 사무총장)
- ▲이희수씨(전 수산청장)
- ▲구자천씨(정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권영명씨(대산녹화산업주식회사 사장)
- ▲송순학씨(엘콤통신 회장)
- ▲박임호씨(주식회사연우기획 사장)
- ▲이종호씨(주식회사법신기획 상무)
- ▲이인재씨(주식회사법신기획 회장)
- ▲안의현씨(전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 ▲최치민씨(한성화학 부사장)
- ▲최홍윤씨(주식회사달마 전무이사)
- ▲정대승씨(서울특별시도봉구청 부구청장)
- ▲윤대현씨(DM상사 사장)

- ▲정대훈씨(금광기업주식회사 이사)
- ▲김인배씨(HST공업주식회사 회장)
- ▲이치훈씨(성진수산 사장)
- ▲민경효씨(펜타컴퓨터코리아주식회사 부사장)
- ▲김순도씨(한국네드로이드라인주식회사 회장)
- ▲박당우씨(대일개발주식회사 부회장)
- ▲이광조씨(극동전선공업주식회사 이사)
- ▲김기평씨(전 보험감독원 부장)
- ▲김상목씨(목천화원 사장)
- ▲김세열씨(한국감정원 인양지점장)
- ▲김윤수씨(한국석유개발공사 본부장)
- ▲김정환씨(주식회사청영실업 사장)
- ▲박호종씨(창림산업주식회사 사장)
- ▲안종관씨(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상무이사)
- ▲윤병무씨(고속도로정보통신시설관리공단 사장)
- ▲이상우씨(일은증권강남지점 사장)
- ▲임승혁씨(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 부장)
- ▲이응규씨(진성경영학술원 원장)
- ▲김용호씨(주식회사세종관광 회장)
- ▲이석규씨(한국대륙통상주식회사 회장)
- ▲김영석씨(한국어항협회 파고계유지관리사업본부장)
- ▲이준양씨(해양수산부 어선과)
- ▲김익수씨(해양수산부 총무과)
- ▲황열성씨(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선경총괄대표)
- ▲김진열씨(한호선국회의원 보좌관)
- ▲이전호씨(해양수산부 어항과장)
- ▲최병원씨(전 수산청 어정과)
- ▲정해택씨(국립수산물검사소 서무과장)
- ▲박기철씨(한국어선협회 전무이사)
- ▲서승남씨(한국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 ▲조동영씨(해양수산부 서해어항사무소)
- ▲손팔원씨(국립수산진흥원 제주수산연구소)
- ▲전정진씨(수협중앙회 미야동지점장)
- ▲이용숙씨(해양수산부 감사관)
- ▲서승욱씨(수협중앙회 상무)
- ▲이정식씨(전 한국어항협회 전무이사)
- ▲김익중씨(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 이사)
- ▲송중석씨(금광기업주식회사 이사)
- ▲서승욱씨(수협중앙회 상무)
- ▲이정식씨(전 한국어항협회 전무이사)
- ▲김익중씨(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 이사)
- ▲송중석씨(금광기업주식회사 이사)
- ▲정영재씨(해양수산부 남해어항사무소장)
- ▲김용덕씨(해양수산부 남해어항사무소)
- ▲손승렬씨(해양수산부 남해어항사무소)
- ▲김현주씨(한국기계연구원

- 선임연구원)
- ▲차상희씨(전 한국수산회 부회장)
- ▲유영해씨(한국어항협회 자문위원)
- ▲강국희씨(유한회사신원종합건설 사장)
- ▲임인규씨(해양수산부 남해어항사무소)
- ▲신석순씨(해양수산부 남해어항사무소)
- ▲김기욱씨(해양수산부 서해어항사무소공사과장)
- ▲김재극씨(주식회사문원사 사장)
- ▲이신복씨(대한어망협회 전무이사)
- ▲조사연씨(해양수산부 동해어항사무소공사과장)
- ▲안익성씨(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 ▲김윤수씨(해양수산부 동해어항사무소장)
- ▲정해용씨(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이사)
- ▲기호준씨(국립수산진흥원 수산경제연구실장)
- ▲김하섭씨(전 국립수산물검사소장)
- ▲고덕봉씨(한국어항협회 전무이사)
- ▲송상철씨(주식회사한국냉장물류프라자 부사장)
- ▲권오윤씨(주식회사제양 사장)
- ▲이태일씨(해양수산부 서해어항사무소)
- ▲이수연씨(주식회사LG텔레콤 이사)
- ▲성기현씨(전 한국어업기술훈련소장)
- ▲박정대씨(해양수산부 비상계획담당)
- ▲신영태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정대연씨(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이사)
- ▲이재현씨(주식회사평원엔지니어링 사장)
- ▲이승현씨(주식회사남영 사장)
- ▲서성룡씨(해양수산부 동해어항사무소)
- ▲배길중씨(해양수산부 동해어항사무소)
- ▲이상철씨(전 대성특수제지주식회사 사장)
- ▲김홍석씨(주식회사유신코퍼레이션 항만부차장)
- ▲조우연씨(해양수산부 공무원교육원장)
- ▲김민영씨(해양수산부 수산가공과장)
- ▲장동익씨(팔보농수산주식회사 사장)
- ▲김동원씨(동아상호신용금고 회장)
- ▲류형로씨(부경대학교 교수)
- ▲이종만씨(주식회사새건설 사장)
- ▲주홍장씨(신라교역주식회사 상임고문)
- ▲김기홍씨(전 수산청 과장)
- ▲김남형씨(제주대학교 교수)
- ▲이광수씨(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어촌따라 어항개발
어항따라 관광개발

건설시장 개방대책 등 협의 업계기술 확보 방안도 건의

한·어항건설 업체대표 회의

해양수산부는 3월20일 황만 및 어항건설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와 감리업체 대표자들에게 성실시공을 당부하고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건설, 대우, 동아건설산업, 대립산업, 쌍용건설, 선경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롯데건설, 한라건설, 극동건설, 임광토건, 삼협개발, 성호종합건설 등 14개 한민건설업체와 삼부토건, 금광기업, 조흥공영 등 3개 어항건설업체 그리

고 유신설계공단, 한국항만기술단 등 2개 감리업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가덕신항만 등 신항만 건설이 본격 착수되고 국내 공공 건설시장이 선진국 건설업체에 개방되는 등 건설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성실시공을 당

부하고 업체의 건의사항을 토론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시장 개방이 신항만 건설과 국책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토의가 있었으며, 수출입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고 어민들의 수산물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항시설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히 건설하는 방안과 개방화 시대의 항만건설 기술력 확보 방안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오는 5월 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9박10일동안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제10차 해외선진어항어촌시찰을 위한 시찰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제10차 시찰은 우리 항의 최첨단 시설과 브리스번의 어항어촌 등을 예년과 같이 시찰국 어항관련 기관단체의 공식안내를 받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본회가 매년 주관하는 해외선진어항어촌시찰은 선진국의 어항시책과 어항건

제10차 해외선진어항 시찰 일·호주 등지로 ... 5월 등정

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和歌縣의 雜賀崎어항, 田邊어항 三重縣의 三木浦어항, 波切어항 愛知縣의 知柄어항을 시찰하고, 환경정화에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에서는 오클랜드항과 데번항을, 그리고 세계 3대 미항으로 이름난 호주의 시드니

실 현황, 관리상태를 현지에서 직접 두루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어항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 어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 건설의 추진과 효율적인 어항관리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성실시공을 위한 한·어항건설업체 대표자 간담회
해양수산부 '97.3.20

규모·공기별로 최고 0.7% 상향 97공사경비 적용기준

조달청이 정부시설공사의 원가산정시 적용하는 제 경비율(기타경비)이 소규모 건축공사와 특수공사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인하된 반면 여타의 모든 공사는 규모와 공기에 따라 최고 0.7%까지 상향 조정됐다.

조달청이 최근 확정 발표한 97년공사원가계산 제 경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와 안전관리비 및 일반관리비의 산정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나 제 경비율은 건축공사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로서 공기 36개월 미만이 0.1~0.3% 감소했으며 이밖의 공사는 공사 규모와 공기에 따라 0.1%에서 최고 0.5%가 상승했다.

상승폭이 가장 높은 건축공사는 30억~50억 미만 13~36개월 공사와 37개월 이상 공사로서 제 경비율이 7.0, 7.2이다.

토목 및 전문공사는 감소 없이 최저 0.1%에서 최고 0.7%가 높아졌는데 특히 30억~50억 미만 13~36개월, 37개월 이상 공사는 7.3%와

7.5%로 각각 0.7%씩 상승했다.

조경 준설 등 특수공사는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공기 6개월 미만이 전년에 비해 0.4%가 감소하는 등 최고 0.4에서 최저 0.1%가 줄었으며 5억원 이상은 0.1에서 0.4%가 상승했는데 으뜸폭이 가장 큰 특수공사는 30억~50억 미만 13개월 이상

공사이다. 한편 조달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련업체 재무제표 분석결과를 울 제 경비율을 비교하여 낮은 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 경비율에 따라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와 특수공사는 원가계산시 공사비가 다소 깎이게 됐다.

국내 수산업계 크게 위축 우려

연근해 1,074억, 양식 101억 피해 추정

7월1일부터 수산물수입자율화

오는 7월1일부터 수산물의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국내 수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수산업계에 따르면 수산물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면 국내산 수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국내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수산물의 수요는 줄어 국내 수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서 인기 높은 조기, 명태, 갈치, 오징어 등 국내산 수산물가격이 외국산에 비해 너무 높아 이들 품목이 본격 수입될 경우 내년

도 어업인들의 피해액은 2천 2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어종별로는 명태(연간 피해액 9백25억원), 오징어(3백19억원), 조기(3백2억원), 갈치(1백90억원)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종별 피해액은 연근해어업의 경우 1천74억원, 원양어업이 9백24억원, 양식어업이 1백1억원, 수산가공업이 96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수입자유화 이후 GNP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7%(95년 기준)에서 오는 2001년 0.5%로 줄어들고 어가 인구도 34만7천명(총인구의 1.0%)에서 31만3천명(총

인구의 0.7%)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입이 전면 자유화될 경우 국내 어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활돔, 농어, 미꾸라지, 새우젓, 명태, 오징어 등 26개 품목에 대해 14~1백%의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을 통해 수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갈수록 생산력이 떨어지는 연근해 어업구조를 조정하고 양식산업의 과학화, 연안어장의 바다목장화 등을 앞당겨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어업생산 방식을 재편키로 했다.

99년 폐선처리 부담금제도 도입 지자체 적립금에서 지급

어선 소유자가 폐선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을 평소에 납부하고 선박수명이 다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선비용 일체를 그 동안 적립금에서 지급토록하는 폐선처리 부담금제도가 오는 99년부터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안해변 및 항구 등지에 버려진 방치폐선의 처리와 관련해 해양경찰청, 시도, 수협 등 관계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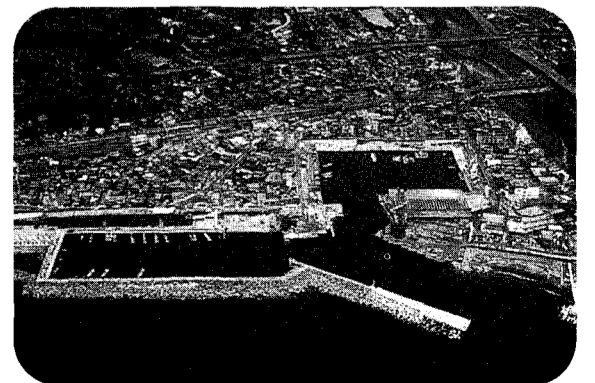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폐선 무단방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폐선이 특히 많이 버려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지방해운항만청과 해경이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제10차 해외선진어항어촌 시찰단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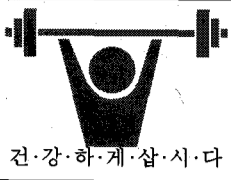
<시찰일정>

月日	行先	交通	時間	旅程
제1일 5.19(月)	서울 大阪 和歌縣	KE732 專用버스	10:10~11:40 13:00~15:00 18:00	金浦空港-大阪空港到着 大阪空港-和歌山 和歌山 1泊
제2일 5.20(火)	和歌山 三重縣	專用버스	08:00 10:00~12:00 15:00~17:00 18:00	和歌山-漁港 視察 雜賀崎漁港 田邊漁港 三重 1泊
제3일 5.21(水)	三重縣 愛知縣 (豊橋)	專用버스 船便	08:00 10:00~12:00 14:00~16:00 17:00~19:00 19:00	三重縣 漁港視察 三木浦漁港 波切漁港 체리 이동 豊橋 1泊
제4일 5.22(木)	愛知縣 名古屋	專用버스 NZ36	08:00~12:00 14:00~16:00 19:00	愛和-名古屋 和柄漁港 視察 名古屋-오클랜드

月日	行先	交通	時間	旅程
제5일 5.23(金)	오클랜드 로토루아	專用버스	11:05 15:00~17:00 19:00	오클랜드 空港到着 오클랜드항 및 데번항 視察 로토루아 1泊
제6일 5.24(土)	로토루아 오클랜드	專用버스	08:00~12:00 13:00~17:00 18:00	송어양식장 시찰 로토루아-오클랜드 오클랜드 1泊
제7일 5.25(日)	오클랜드 시드니	NZ101 專用버스	08:00~09:20 13:00~17:00 18:00	오클랜드-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1泊
제8일 5.26(月)	시드니	專用버스	10:00~17:00 18:00	시드니 海運港碼頭 및 港灣 視察 시드니 1泊
제9일 5.27(火)	시드니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AN118 專用버스	09:50~11:10 14:00~17:00 18:00	시드니-브리스번 브리스번 어항어촌시찰 골드코스트 1泊
제10일 5.28(水)	브리스번 서울	NZ374	08:30 10:50~19:50	브리스번 공항 이동 브리스번 출발-서울 도착



문의처 : 한국어항협회 사무국
(02)568-6695~6



노인성 치매증

망각 우울 불면증 반복면 의심
취미 일 갖도록 가족 보살핌이 중요

세수를 하려고 수도물을 틀었다가 잠거기를 잊어버린다' '바로 오늘 아침에 한 약속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

이처럼 기억력 감퇴 등을 주증상으로 하는 치매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앞으로 의학계가 풀어야 할 대표적인 질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명 노망으로 더 잘 알려진 치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등장과 함께 치매노인의 치료 및 관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10%, 85세 이상은 47%가 치매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은 지난 90년에 4.7%에서 2000년에 6.8%, 2020년에는 1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치매의 원인은 알츠하이머형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그밖에 여러 곳의 뇌동맥이 막히는 다발성경색치매가 약 10-20%, 기타 감산성 장애, 일산화탄소 중독, 알콜 중독, 두부외상, 당뇨병, 우울증 등으로 인한 일시적 치매 등이다. 노인성치매는 어떤 원인질환에 의한 이차적 결과로 보고 있으나 좁게는 알츠하이머병으로 국한시키는 경향도 있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경세포의 변성은 분명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일부 환자들에서는 유전적인 요인도 인정되고 있다.

다발성경색치매는 반복되는 뇌졸중으로 뇌의 여러 부위가 막히는 것으로 결국 인지 기능이 황폐화되는 과정을 밟게되나 알츠하이머병보다는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발성경색치매는 회복이 어려운데 비해 기타의 원인질환에 의한 치매는 대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원인규명 및 정도를 밝히기 위한 철저한 의학적 검사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검사 외에도 뇌단층촬영 같은 특수한 검사가 도움이 될 때가 많다. 이와같은 치매의 예방책으로는 지금까지 확실한 방법이 나와있지 않지만 신체적 건강상태의 유지, 지속적인 정신활동과 사회활동의 유지, 가족들과의 잦은 대화 및 따스한 가정분위기의 조성 등이 좋은 예방이 된다고 한다. 또 환자의 하루 일과를 일정한 스케줄에 따르게 하거나, 환자방의 시계나 달력은 뚜렷한 숫자로 표시, 규칙적으로 TV시청이나 신문보기, 밤에 약한 조명을 켜서 야간혼동의 가능성을 줄이기 등의 조치를 해 환자가 외부세계와 접촉하게 한다. 치매의 치료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우선적이다. 치매라고 단정하기 전에 신체나 정신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병이 원인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치매라고 단정해 버리면 회복이 어렵다는 선입견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정신활동과 사회활동의 유지, 가족들과의 잦은 대화 및 따스한 가정분위기의 조성 등이 좋은 예방이 된다고 한다. 또 환자의 하루 일과를 일정한 스케줄에 따르게 하거나, 환자방의 시계나 달력은 뚜렷한 숫자로 표시, 규칙적으로 TV시청이나 신문보기, 밤에 약한 조명을 켜서 야간혼동의 가능성을 줄이기 등의 조치를 해 환자가 외부세계와 접촉하게 한다. 치매의 치료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우선적이다. 치매라고 단정하기 전에 신체나 정신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병이 원인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치매라고 단정해 버리면 회복이 어렵다는 선입견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第1장 漁港의 各種施設과 工種區分

(3) 부잔교
①기본적인 구조 형식
부잔교의 기본적인 구조 형식을 그림 1.4.7에 제시한다. 또 구조는 그림 1.4.8, 1.4.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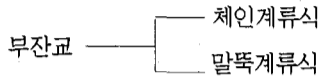


그림 1.4.7 부잔교의 기본적인 구조 형식

②부잔교의 공종
부잔교의 체인계류식과 말뚝계류식이 있다. 체인계류식 부잔교는 제체공(부체제작공), 계류공(체인계류<제7장 콘크리트블록공>), 연락교공(교량공) 등 말뚝계류식 부잔교는 제체공(부체제작공), 계류공(제9장 말뚝 및 널말뚝공), 조철탑가설공(제17장 용접, 절단공), 연락교공(교량공) 등의 공종으로 구성된다.

(4) 선착장
선착장의 형태 및 구조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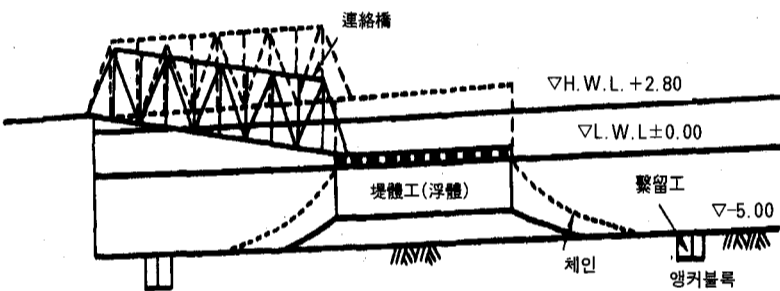


그림 1.4.8 체인계류식 부잔교의 공종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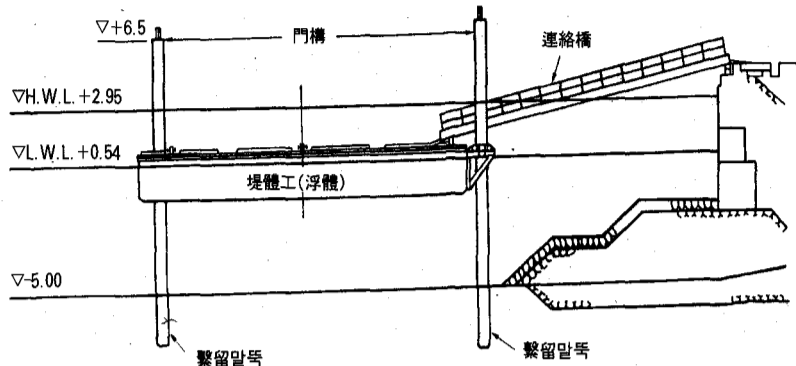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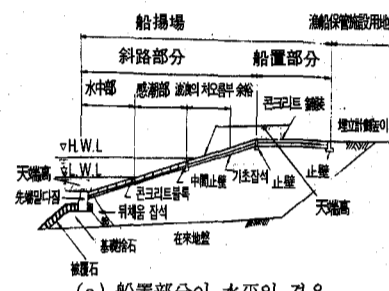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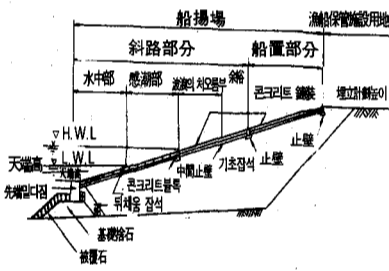


그림 1.4.9 말뚝계류식 부잔교의 공종구성

1.4.10에 제시한다. 선착장은 선단보호공의 기초공(제3장 초석, 피복 및 밀다짐), 제체공(제7장 콘크리트블록공), 뒤패움공(제11장 뒤패움공), 흠막이공(제5장 콘크리트), 여로공(제7장 콘크리트블록공, 제16장 포장공), 물받이공(제16장 포장공) 등으로 구성된다.



(a) 船置部分이 水平일 경우



(b) 船置部分이 斜路部分과 동일한 경사를 갖는 경우

그림 1.4.10 船揚場の 形狀과 構造

상속세 제도

상속세라함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세 납부의무자

○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균등하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게 된다.

신고와 납부

○ 상속세는 상속개시지 즉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한다.

○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련 4천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3년(사업상 속의 경우 5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세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을 넘을 때에는 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안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알아야 할 세법 상식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공 제 액
○ 미납부공과금	전 액
○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
○ 부 채	전 액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배우자	실제상속받은 가액중 민법상 법정상속 지분내의 가액(최소 5억, 30억 한도)
자 녀	3,000만원
미성년자	20세까지 연수×500만원
연 로 자	3,000만원
장 애 자	75세까지 연수×500만원
○ 기업상속	1억
○ 영농상속	2억

○ 상속세액은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최저 10%에서 최고 4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증여세

증여세의 의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다.

증여세 납부의무자

증여를 받은 자(영리법인은 제외)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율체계

증여세 소관세무서 및 신고의무 증여받은 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며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증여세의 신고방법이나 신고납부 세액공제 등은 상속세의 경우와 같다.

과세표준	세 율
2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2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천800만원+1억5천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30
3억원 초과	7천300만원+3억 초과분의 100분의 40

생 활 정 보

생 활 정 보